

# 청년 마에스트로 국악 신예 꿈의 협주

###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주최

### 20일 광주예술의전당 '협연의 밤' 지휘자 4명과 연주자들 한 무대

“국악계에는 ‘혁신’이 필요한데 지역 국악 신예를 발굴하는 것이야말로 그 핵심 작업일 것입니다. 이번 ‘청소년 협연의 밤’ 공연이 국악계에 입문하는 새 얼굴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박승희 상임지휘자가 올해 초 ‘대한민국 국·공립국악지휘자협회’ 회장직에 취임하며 밝혔던 ‘청소년 협연의 밤’ 계획이다. 국악계 새내기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전통예술 동량들이 얼굴을 알리려 했다.

전도유망한 청소년 국악관현악 지휘자 4인과 연주자들이 한 무대에 선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8회 정기연주회 ‘청소년 협연의 밤’에서 기량을 펼치는 것.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전남대, 중앙대, 한예종은 물론 서울대, 한양대 등 다양한 출신의 전통예술 신예들이 출현해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총 네 명의 청소년 특별지휘자가 각각 1-2곡씩 지휘를 맡는다.

거문고가 그리는 추상의 세계, 풍류정신을 거문고협주곡에 담은 ‘강상유월’로 막을 연다. 자연과 합일하는 무아지경을 특유의 주법, 리듬으로 표현한 노래로 국립국악원, 고래야 인도 음악축제 등에서 협연해 온 나선진(한예종 전통예술원 전문사 재학)이 연주할 예정이다.

이어 일본 작곡가 미키 미노루의 가야금 협주곡 ‘소나무’가 울려 퍼진다. 원곡은 일본 전통악기 ‘고토’를 위한 음악이지만 백대웅이 25현 가야금에 맞게 편곡했다. 가야금 협연은 중앙대 일반대학원 한국음악학과에 재학 중인 이승호가 맡는다.

두 곡의 지휘봉은 신예 마에스트로 유주서가 잡는다. 중앙대 전통예술학부에서 지휘/음악학부 작곡을 전공했으며 지난해 광주시립교향악단 지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사회를 맡은 박승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공)

휘 마스터클래스 등에 참여했다. 이라크 침공에 대한 아픔을 형상화한 대금협주곡 ‘꽃’도 레퍼토리에 있다.

아프리카 피그미족의 리듬(보방가·양기사)을 활용했으며 팀파니와 태평소의 역할이 큰 작품이다. 대금 연주는 제35회 동아국악콩쿠르 학생부(대금부문) 은상, 제45회 국제국악경연대회 고등부 1위를 수상한 신소연이 맡는다.

피리협주곡 ‘달의 눈물’은 메나리 선율을 주제로 다이나믹한 음색을 구현하는 작품이다. 협연에 이화여대 한국음악과와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김석연. ‘꽃’과 ‘달의 눈물’ 두 곡은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에서 작곡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이화여대 등에 출강 중인 김상욱이 지휘한다.

대금협주곡 ‘아르티’와 가야금협주곡 ‘찬기파랑’도 관객들을 만난다. 각각 전남대 국악학과에 재학 중인 나혁주(대금)와 박지영이 연주하며 지

휘는 강한희(SM엔터테인먼트 SM클래식 전속작·편곡가)가 맡는다.

끝으로 단국대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임형목(전용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지휘에 맞춰 소리꾼 이승훈이 부르는 판소리 ‘심청가’도 들을 수 있다. ‘심청가’ 중 심청을 용궁으로 데려와 환대하는 장면인 ‘화초타령·방아타령’ 대목을 부른다.

한양대 음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이승훈은 제24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고등부에서 금상 등을 수상했다.

박승희 지휘자는 “이번 공연에 출전하는 청소년 예술가들은 학부·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피리, 대금 등 6개 종목에 걸쳐 추천을 받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주자를 선정했다”며 “차세대 국악인”을 발굴한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도 젊은 예술가들에게 협연 기회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개성과 뮤지션 3인 3색 매력 속으로~

### 15일 예술이백그라운드 ‘G삼선 콘서트’... 고의석·김마스타 등

블루스, 포크, 클래식 기타로 자신만의 일가를 이뤘던 개성 강한 뮤지션들이 광주에 온다. 한국 최대 클래식 기타리스트 ‘고의석’, 모던포크 싱어송라이터 ‘하이 미스터메모리’, 블루지한 음악을 추구하는 싱어게인 5호 가수 ‘김마스타’가 그 주인공이다.



G삼선 콘서트에 출연할 예정인 고의석(왼쪽부터), 김마스타, 하이 미스터메모리. (예술이백그라운드 제공)

예술이백그라운드(대표 이당금)이 오는 15일 오후 7시 예술이백그라운드에서 ‘G삼선 콘서트’를 펼친다. 세 아티스트의 협연은 지난해 딱 한 번만 선보이기도 했었으나 관객들의 호응, 찬사 ‘케미’로 인해 어느덧 10회를 넘기고 있다.

기타리스트 고의석은 한국기타협회공쿠르(1위), 도쿄국제기타공쿠르(파이널리스트) 등을 석권하며 이름을 알린 ‘클래식 기타리스트’다. 그동안 스페인 대사관 초청 연주, 광주 기타 페스티벌을 비롯해 예술의전당 로드리고 페스티벌에 참여했으며 독주앨범 ‘Choro da Saudade’ 등을 발매했다.

모던포크 싱어송라이터 ‘하이 미스터메모리’도 이목을 끈다. 그는 이번 예술이백그라운드 공연이 세 번째로 평소에도 소극장 콘서트를 지향해 왔다. 하이 미스터메모리는 2007년 정규앨범 ‘안녕,

기억’을 통해 데뷔한 뒤 호소력 짙은 포크 록을 노래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JTBC ‘싱어게인 3’에 5호 가수로 출연한 ‘김마스타’는 평키한 리듬 커밍으로 대중음악을 선도하고 있는 기타리스트·가수 겸 작곡가다.

예술이백그라운드 이당금 대표는 “2021년부터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소극장 콘서트 일환으로 ‘G삼선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조바한 공연장을 찾아 리스너들이 삼인 삼색 음악의 매력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레퍼토리는 공연 전날(또는 당일) 확정된다. 예매 3만원(현매 4만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시로 만나는 ‘윤상원·전태일’ 삶과 정신

### 김해자·황규관 시인, 18일 ‘동명책방 꽃이피다’서 시담회

김해자 시인은 지난 1998년 ‘내일을 여는 작가’로 작품활동을 시작해 ‘무화과는 없다’, ‘축제’ 등의 시집을 펴냈다. 민중구술집 ‘당신을 사랑합니다’ 등을 펴내며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들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형상화해왔다. 올해 오월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시집 ‘니들의 시간’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이 리얼리즘 시의 취약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바탕을 만드는 강력한 전환점”이라고 평한 바 있다.



시집 ‘나비가 된 불꽃-전태일’이라는 시에는 시인 29명의 작품 58편, 에세이 2편, 14점 연작 판화가 수록돼 있다. 29명의 시인들은 저마다 독특한 시풍으로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구어가고 있다. 황규관 시인도 그 가운데 한 명이다.

김해자 시인과 황규관 시인의 시담회가 열린다. 오는 18일 오후 7시 동명책방 꽃이피다.

이번 시담회는 동명책방과 (사)전태일의 친구들이 공동 기획했으며 광주의 윤상원과 대구의 전태일의 삶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이들 두 열사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담회에서는 김해자 시인의 ‘니들의 시간’과 황규관 시인의 ‘나비가 된 불꽃-전태일’이라는 시에 수록된 작품을 모티브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시담회 특별 손님으로 조선남 전태일문학상 수상 시인이자 (사)전태일의 친구들 이사인 조선남 시인이 참여한다.

동명동 꽃이피다 김미소 대표는 “이번 행사는 윤상원과 전태일의 삶을 회상하고 열사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시민 모금으로 옛집을 매수해 기념관을 짓고 있다”며 “광주에는 민주화를 위해 산화했던 윤상원열사가 있는데, 이번 시담회를 통해 두 열사의 고귀한 정신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담회에서는 두 열사의 삶의 기록을 담은 다큐 ‘두개의 일기’가 상영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풍경을 통해 내면의 ‘나’를 들여다보다

### 박현덕 시인 10번째 시조집 ‘와온에 와 너를 만난다’ 펴내

2019년 제7회 담양순문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박현덕 시인은 고등학교 때인 82년 호남 예술제에서 시가 입선된 이력이 있다. 이후 ‘현대시조’,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조가 당선돼 창작활동 등을 펼쳤다. 중앙시조대상,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율격’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시인은 순문문학상 수상 당시 ‘남도의 역사와 정서를 시조로 더욱화하라는 뜻으로 알고 살아 움직이는 시조를 창작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완도 출신의 시인은 그동안 시조에 대한 남다른 감성과 감각으로 꾸준히 작품을 써왔다. 박 시인이 이번에 10번째 시조집 ‘와온에 와 너를 만난다’(문학들)를 펴냈다.

이번 시조집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상을 자신만의 육화된 언어로 풀어냈다는 데 특징이 있다. 풍경을 매개로 마음을 드러내고, 그 풍경을 통해 다시 내면을 바라본다.

“비 내린다 와온 가는 길 깊숙 파고들여/ 휘몰아친 쓸쓸함에 줄줄 흐른 절망처럼/ 황급히 해변으로 가 홀로 시를 읊는다// 가슴을 쥐어짜는 시적인 구절마다/ 무성한 거짓말로 화가 나고 슬프다/ 젖은 몸, 흠뻑 젖은 와온 눈물방울 흘렸다...”

위 시 ‘와온에 너를 만난다 3’은 쓸쓸하면서도



상실감에 젖은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비가 내리는 와온의 풍경을 “줄줄 흐른 절망처럼”이라고 노래하듯 화자의 내면은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아마도 화자는 세상에서 넘어진 절망의 시간을 그려내고 와온에 도착한 것 같다.

절제된 언어로 와온 해변의 모습을 담아낸 시는 한편의 풍경화이자 화자 자신에게 건네는 고백이다. “아팠던 날들 지나 어스름 비 그치면” 뭔가 새로운 시적이 도래할까 기대하지만 그러나 화자의 내면은 “축축한 집 시커멓게 어둠이 휘감는다”는 표현처럼 여전히 쓸쓸함으로 가득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테리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부정관청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정관청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리인드스트리(주)**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